

주요용어 : 자아정체감, 적응, 간호대학생

간호대학생의 자아정체감과 적응에 대한 연구

김명화*, 한성숙**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대학 시기는 청년기에 해당하며 주체적이고 책임감 있는 성인이 되기 위한 준비의 시기이다(탁은아, 1996). 그러나 대학생들은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학습에는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만 청소년기의 당면과제인 자아정체성의 확립은 외면하는 경향이 있다(이형득, 1983; 이차선, 1998). 간호대학생들도 청소년 후기에 해당되는 시기에 있으므로, 간호전문직에 대한 바람직한 가치관 형성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며(권윤희와 김정남, 2002) 긍정적인 자아정체감, 자기효능감, 인생관 및 사회적 가치관 등의 확립이 요구된다(이혜경, 2000).

또한 간호대학생은 일반대학생이 경험하는 자아정체성의 문제와 더불어 다양한 임상실습 상황에서 대인관계문제와 심리적 갈등, 불안, 긴장, 스트레스를 경험한다(고성희와 김기미, 1994). 간호대학생의 이러한 경험은 환자 및 환자가족을 조력하는데 저해요인이 되므로 어떤 환경에서도 잘 적응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다. 의료환경의 변화와 간호의 전문화 추세는 간호사의 역할 확대를 가져왔고, 이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변화하는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한편, 자아정체감은 개인이 자신은 타인과 다른 고유한 존재라는 의식을 갖게 되는 것을 의미하므로(Erikson, 1968)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관을 의미하는 자아존중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배제현, 1993). 긍정적인 자아정체감은 적응력을 가능하게 하며 자기실현을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행동을 결정하고(박준수, 1987), 자신에 대한 신념, 수용적 태도 그리고 심

리적 여유를 지니고 현실에 건전하고 긍정적인 자세로 대응하며 타인과의 동일시 및 공동체의식을 가짐으로써 원만한 적응을 가능하게 한다(이승룡, 1992).

그러나 간호교육과정안에 자기발견이나 자기탐색을 위한 기회는 거의 없는 실정이며, 학생들은 자아정체감의 혼란이나 위기를 경험하기도 하고 자신을 정의하는데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자아정체감은 “나는 무엇인가”에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인데, 자아정체감을 성취한 학생들은 내적 자신감을 갖게 되고 직업과 이념에 대해 명백한 참여나 관심행동을 보이게 된다. 따라서 건강한 자아정체감을 성취한 간호대학생들은 간호전문직에 대해 확고한 의식과 전문지식으로 준비하게 되고 내적 자신감을 갖고 간호사로서의 준비를 안정되게 해 나갈 것이다.

그러므로 간호교육자는 미래사회의 주역이 될 학생들을 올바르게 이끌어 학생자신 뿐 만 아니라 전문직의 성장에도 기여할 수 있고 시대적 흐름에 따른 어떠한 변화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확고한 간호전문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배행자, 2001). 또한 간호교육을 통하여 간호대학생이 자기 자신을 옳게 지각하고 받아들일도록 돕고,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과업인 자아정체감을 바르게 확립시켜 성취욕구가 높고 목표의식이 뚜렷하며 적응력과 자율성을 갖춘 전문인이 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혜경, 2000; 배정미, 2000; 배행자, 2001)은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들의 자아정체감과 적응 수준을 파악하여 자아정체감 형성과 적응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하였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자아정체감과 가정 및 대학생활적응 정도를 알아보고, 자아정체감과 적응력과

*해전대학 간호과 시간강사

**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의 상관관계를 파악함으로써 자아정체감 형성과 적응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의 자아정체감을 파악한다.
- 2) 대상자의 가정 및 대학생활 적응 정도를 파악한다.
-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정체감을 파악한다.
- 4)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가정 및 대학생활 적응 정도를 파악한다.
- 5) 대상자의 자아정체감과 가정 및 대학생활 적응 정도와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3. 용어의정

1) 자아정체감

자아정체감이란 지금까지 준비된 개인의 내재적 불변성과 계속성이 타인에 대한 자기의미의 불변성과 계속성과 일치한다는 축적된 자신감으로서 생애에 대한 구체적인 약속이며, 자신에 대한 현실감이다. 즉, 자기존재의 동일성과 독특성을 지속하고 고양시켜나가는 자아의 자질(ego-quality)이다(Erikson, 1968).

본 연구에서는 박아청(2003)의 “한국형 자아정체감 검사”를 사용하여 측정된 점수를 의미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정체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2) 적응

적응이란 개체와 환경 간에 균형 있고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욕구좌절이나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해나가는 행동과정(한미선, 1987)으로서 적응은 정중권(1998)이 개발한 가정생활적응도 검사와, 학교생활적응도 검사를 사용하여 측정된 점수를 의미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적응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4.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충청남도 소재 2개의 대학 재학중인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연구결과를 확대 해석하는 데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II. 문헌고찰

1. 자아정체감

자아정체감이라는 용어는 Erikson이 처음으로 사용한 용어

이지만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려운 개념이다. Erikson(1968)은 개인의 정체감을 객관적인 측면의 심리·사회적 정체감과 주관적 측면인 개별적 정체감으로 구별하고 있다. 여기서 사회·심리적 정체감이란 개인이 속하고 있는 집단에 대한 귀속감 또는 일체감을 의미하고, 개별적 정체감이란 이러한 집단적인 정체 의식 속에서도 개인이 자신은 타인과 다른 고유한 존재라고 의식을 갖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자아정체감이 긍정적으로 확립이 되면 자기자신에 대한 신념과 수용적 태도로 심리적 여유를 가지고 인생의 목표를 설정하여 자기실현의 구체화 방향으로 행동을 결정지으며 타인과 동시에 공동체 의식을 가지므로 원만한 대인관계와 적응을 가능하게 한다. 반면에 자아정체감이 부정적으로 형성되거나 역할혼미에 빠지게 되면 자기를 부정하며 무가치하고 무능한 존재로 열등시하여 목표지향성과 방향감각을 상실하여 무원칙한 행동을 하며 적응과 자아실현에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다(박준수, 1988).

이러한 자아정체감의 발달에 필요한 구성요소 중 대부분 포함하고 있는 것은 자신의 신념과 가치에 대한 주장, 둘째, 안정성 즉, 시간적 경과, 유동적 인간관계에서도 일관되고 동질적인 자기인식, 셋째, 인간관계에서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일관적인 인식, 넷째 자기수용의 확장, 다섯째, 개인적 존재에 대한 독특성, 여섯째, 개인의 장래와 목표에 대한 지향성 등을 들 수 있다(김지현, 2000).

자아정체감에 대한 연구동향을 살펴보면, 국내연구로는 자아정체감 형성의 과정을 의미하는 연령과 학교수준에 따른 특점의 변화에 관한 연구(서봉연, 1975; 김영선, 1986; 박준수, 1987; 김형태, 1989; 김옥철, 1990; 박아청, 1996; 이차선, 1998)와 자아정체감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박선기, 1977; 전광주, 1987; 양상규, 1989; 조성덕, 1987; 백영애, 2003), 자아정체감 형성과 여러 가지 성격특성에 관한 연구(김영복, 1983; 김영선, 1986; 박준수, 1987; 이정란, 1987), 자아정체감과 적응과의 관계를 다룬 연구(정인숙, 1979; 윤봉숙, 1984; 김형태, 1989; 서수정, 1992)들이 있다.

국외연구로는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자아정체감간의 관계를 다룬 연구(Waterman, 1982; Song & Hattie, 1984; Turner, 1990), 가정의 심리적 환경과 자아정체감에 대한 연구(Cambell et al, 1984; Bosma & Gerrits, 1985; Watson & Protinsky, 1988; Frucht, 1989; Turner, 1990), 학교환경과 자아정체감에 관한 연구(Rutter, 1985), 자아존중감과 자아정체감에 관련된 연구(Abraham, 1983; Turner, 1990), 연령 및 성별과 자아정체감과의 관련 연구(Fitch & Adams, 1983;

Waterman, 1985; Bilsker, et al, 1998), 자아정체감이 발달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과의 비교연구(Silver et al, 1990; Moore & Forster, 1993; Lawsen, 1994)들이 있다.

위의 선행연구에서 전반적으로 자아정체감의 형성은 중학교에서부터 의미있게 지속적인 발달을 하며 대학시절에 급격하게 발달한다고 보고하였다. 자아정체감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가정환경, 학교환경, 사회환경요인 등을 들 수가 있으며, 학교수준, 생활변동, 장래전망, 동일시대상, 자기의식의 일관성, 학교체제, 자신의 신체발달에 대한 지각, 성별, 거주지역, 집단상담프로그램의 참여 등을 들었다. 또한 자아정체감은 가정환경(부모의 양육방식, 부모에 대한 동일시, 출생순위, 부모유무, 가정의 경제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학교 및 사회적 적응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그리고 가정의 사회경제적인 지위와 자아정체감 사이에는 낮은 상관관계가 있지만 심리적인 측면에서 개인에게 보다 직접적이며 큰 영향력을 갖는다고 볼 수 있었다. 학교환경(교사, 교우, 학업성취도 등)은 자아정체감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으며, 자아존중감과 자아정체감은 정적인 관계를 나타내고 있었다. 성별에 있어서 자아정체감의 차이는 확실하지 않았으나 연령에 있어서는 청소년기에 나이가 올라갈수록 정체감이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2. 적응

적응이란 개체와 환경 간에 균형 있고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욕구좌절이나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행동과정이며 개인과 환경과의 역동적인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여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달성해 나아가는 창조적인 과정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한미선, 1987).

청년들이 사회적으로 적응하는 데는 많은 갈등이 내포되어 있는데, 이는 청년기에 신체적 욕구가 집중적으로 표출되며, 정서적으로 강열해지고, 신체적·심리적 변화와 함께 사회적 욕구가 고조되고 자아가 강해지므로 욕구좌절의 기회가 많아지고, 사회경험이 미숙해서 충분한 적응기술을 획득하지 못해 사회적응에 많은 갈등을 겪게 되기 때문이다(소영원, 1997).

특히, 직업선택을 위한 준비, 가족으로부터의 독립, 가치관의 변화, 대인관계의 확장 등 바람직한 사회화를 위해 노력하는 시기이므로 이 시기에 청년들은 그들의 주변환경에 적응해 잘 적응해 가야만 한다. 잘 적응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거나 자기자신을 손상함 없이 현실적으로 융통성 있게 자기의 욕구를 충족시켜 나가며, 정서적으로 성숙된 적응행동의

특징은 독립성, 환경숙지, 자기정체감, 통합성 등을 들 수 있다(김은영, 1993).

3. 자아정체감과 적응과의 관계

박준수(1987)는 자아정체감은 적응력 및 자아실현성과 밀접한 상호관련이 있으며, 특히 긍정적인 자아정체감은 적응력 수준과 자아실현 수준을 높이는 것으로 밝혔다.

김형태(1987)는 청년기 자아정체감의 발달 및 측정에 관한 연구를 중, 고,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결과 학교생활적응 여하가 청년기의 자아정체감 형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자아정체감 형성은 개인의 행동방향 및 사회적 적응의 방향을 결정하므로 자아가 긍정적이고 안정된 개인은 부정적이고 불안한 개인보다 훨씬 적응을 잘 한다고 할 수 있다(소영원, 1997).

대학생의 자아정체감과 적응에 관한 선행 연구들을 검토한 결과, 가정생활 적응은 청소년후기의 자아정체감 형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박아청, 1989; Shulkin, 1990; 정종권, 1998; Aderson & Fleming, 1996; Baik, 1997; Lapsley, 2002), 대학생의 학교생활적응은 자아정체감 형성과 정적인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배제현, 1982; 김형태, 1989; 박준수, 1993; Boulter, 2002).

위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자아정체감과 적응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대학생 시기에 이루어야만 하는 중요한 발달과업이므로 자아정체감과 적응에 대한 연구는 의미있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자아정체감과 적응 정도를 파악하여 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을 돕고 학생들의 인성개발 및 생활지도를 위한 기초자료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하였다.

III.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자아정체감과 적응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충청남도 소재 H대학과 S대학에 재학 중인 간호대학생 대상으로 하였으며 총 480부를 배부하고 425

부를 회수하여 88%의 회수율을 보였으며, 부적절한 자료 25부를 제외한 400부를 자료분석에 이용하였다.

3. 연구도구

1) 자아정체감

자아정체감은 박아청(1996)이 개발하여 재정리, 수정한 한국형 자아정체감 검사(2003)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6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Likert식 5점 척도로서 “매우 그렇다” 5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정체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94였으며, 본 연구에서도 .94였다.

2) 적응

적응도구는 정중권(1998)이 개발한 가정생활적응도 검사와, Baker와 Siryk(1984)가 개발한 대학생생활적응척도(Student Adaptation to College Questionnaire; SACQ)를 기초로 하여 정중권(1998)이 개발한 학교생활적응도 검사를 사용하였다.

가정생활적응 도구는 총 15개의 문항(3개영역-협동성, 친밀성, 소속감)으로 구성되었으며, 학교생활적응 도구는 총 20개의 문항(4개영역-참여도, 만족도, 안정도, 적응도)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도구는 Likert식 5점 척도로서 “매우 그렇다” 5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적응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가정생활적응도 검사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59이었으며, 학교생활적응도 검사의 Cronbach's α 는 .84였다. 본 연구에서 가정생활적응 검사의 Cronbach's α 는 .84였고, 학교생활적응 검사의 Cronbach's α 는 .79였다.

4. 자료수집

자료수집 기간은 H대학교 S대학에서 2004년 4월 6일부터 4월 20일까지였으며, 각 대학의 학과장에게 협조를 구하고 연구 목적을 설명한 후 설문지를 배분하였다. 총 480명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실습 중이어서 미회수 되었거나 기재누락의 부실자료를 제외한 400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pc+ Package에 의해 통계처리 하였으며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고 일반

적 특성에 따른 자아정체감과 적응 정도와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t-test와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하였고 집단내 차이에 대한 사후검정은 Scheffé 다중비교(multiple comparison)로 검정하였다. 또한 대상자의 자아정체감과 적응 정도와의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IV.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대상자는 충청남도 소재 H대학교 S대학 간호와 학생으로 총 400명 중 1학년이 39.8%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3학년 35.3%, 2학년 25.0% 순으로 나타났다. 거주형태별로는 부모와 함께 사는 학생이 49.8%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자취 25.5%, 기숙사 20.8% 순이었다. 부모유무별로는 양친이 모두 있는 학생이 89.0%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출생순위별로는 첫째가 43.3%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으며, 다음으로 둘째 28.8%, 셋째 이상 21.3%, 외동 6.8% 순으로 차지하였다. 거주지별로는 충청지역이 55.0%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경기 31.3%, 서울 10.8% 순이었다. 간호과 선택동기별로는 자신의 자발적 동기에 의해 간호과를 선택한 학생이 46.8%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부모님 권유 28.5%, 취업의 용이성 22.3% 순으로 나타났다<표 1>.

2. 대상자의 자아정체감

대상자의 자아정체감 정도는 <표 2>와 같으며 총 평균평점은 최고 점수 5점에 대해 3.46점으로 보통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를 각 영역별로 살펴보면 ‘미래확신성’이 평균 3.87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자기수용성’ 3.84, ‘주체성’ 3.31, ‘친밀성’ 3.29, ‘목표지향성’ 3.27순으로 나타났으며, ‘주도성’이 3.20으로 가장 낮았다. 이상과 같이 간호대학생들은 자아정체감 중 미래확신성이 가장 높았으며, 주도성이 가장 낮음을 알 수 있었다.

3. 대상자의 적응정도

(1) 가정생활 적응

대상자의 가정생활적응 정도는 <표 3>과 같으며, 총 평균 평점은 최고 5점에 대해 3.53으로 보통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 구 분 | 빈도(명) | 백분율(%) |
|--------------|------------|-------|--------|
| 학 년 | 1학년 | 159 | 39.8 |
| | 2학년 | 100 | 25.0 |
| | 3학년 | 141 | 35.3 |
| 거주형태 | 부모와 동거 | 199 | 49.8 |
| | 하숙 | 5 | 1.3 |
| | 기숙사 | 83 | 20.8 |
| | 자취 | 102 | 25.5 |
| | 친척집 | 11 | 2.8 |
| 부모유무 | 양친 계심 | 356 | 89.0 |
| | 어머니만 계심 | 31 | 7.8 |
| | 아버지만 계심 | 7 | 1.8 |
| | 양친 부재 | 6 | 1.5 |
| 출생순위 | 외동 | 27 | 6.8 |
| | 첫째 | 173 | 43.3 |
| | 둘째 | 115 | 28.8 |
| | 셋째 이상 | 85 | 21.3 |
| 거 주 지 | 서울 | 43 | 10.8 |
| | 경기 | 125 | 31.3 |
| | 충청 | 200 | 55.0 |
| | 전라 | 1 | 0.3 |
| | 경상 | 3 | 0.8 |
| | 기타 | 8 | 2.0 |
| | 계 | 400 | 100.0 |
| 간호학과 선택동기 | 부모님 권유 | 114 | 28.5 |
| | 자신의 자발적 동기 | 187 | 46.8 |
| | 취업의 용이성 | 89 | 22.3 |
| | 성적에 따른 선택 | 8 | 2.0 |
| | 기타 | 2 | 0.5 |

타났다. 이를 각 영역별로 살펴보면 '유대성'이 평균 3.63으로 가장 높았으며, '협동성' 3.59, '소속감' 3.37 순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간호대학생들은 가정생활 적응 중 유대성이 가장 높았으며, 소속감이 가장 낮음을 알 수 있었다.

<표 2> 대상자의 자아정체감

| 구 분 | MEAN | SD |
|-------|------|------|
| 주체성 | 3.31 | 0.47 |
| 자기수용성 | 3.84 | 0.58 |
| 미래확신성 | 3.87 | 0.61 |
| 목표지향성 | 3.27 | 0.55 |
| 주도성 | 3.20 | 0.58 |
| 친밀성 | 3.29 | 0.58 |
| 자아정체감 | 3.46 | 0.45 |

<표 3> 가정생활 적응

| 구 분 | MEAN | SD |
|---------|------|------|
| 협동성 | 3.59 | 0.60 |
| 유대성 | 3.63 | 0.62 |
| 소속감 | 3.37 | 0.71 |
| 가정생활 적응 | 3.53 | 0.33 |

<표 4> 학교생활 적응

| 구 분 | MEAN | SD |
|---------|------|------|
| 참여도 | 2.96 | 0.57 |
| 만족도 | 3.06 | 0.62 |
| 안정도 | 2.81 | 0.59 |
| 적응도 | 2.75 | 0.48 |
| 학교생활 적응 | 2.89 | 0.41 |

(2) 학교생활 적응

대상자의 학교생활적응 정도는 <표 4>와 같으며, 총 평균 평점은 최고 5점에 대해 2.89로 보통 수준이었다. 이를 각 영역별로 살펴보면 '만족도'가 평균 3.06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참여도' 2.96, '안정도' 2.81 순으로 나타났고, '적응도'가 2.75로 가장 낮았다.

이상과 같이 간호대학생들은 학교생활적응 중 만족도가 가장 높았으며, 적응도가 가장 낮음을 알 수 있다.

<표 5>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정체감

| | 구 분 | N | Mean | SD | t(F) | Scheffé |
|--------------|------------|-----|------|------|--------|---------|
| 학 년 | 1학년 | 159 | 3.48 | 0.49 | 1.82 | - |
| | 2학년 | 100 | 3.39 | 0.42 | | |
| | 3학년 | 141 | 3.49 | 0.41 | | |
| 거주형태 | 부모와 동거 | 199 | 3.43 | 0.44 | 2.08 | - |
| | 하숙 및 기숙사 | 99 | 3.54 | 0.47 | | |
| | 자취 | 102 | 3.45 | 0.43 | | |
| 부모유무 | 양친계심 | 356 | 3.45 | 0.45 | -1.23 | - |
| | 결손가정 | 44 | 3.54 | 0.40 | | |
| 출생순위 | 외동 | 27 | 3.41 | 0.59 | 0.24 | - |
| | 첫째 | 173 | 3.45 | 0.42 | | |
| | 둘째 | 115 | 3.48 | 0.46 | | |
| | 셋째 이상 | 85 | 3.48 | 0.43 | | |
| 간호학과 선택동기 | 부모님 권유 | 114 | 3.37 | 0.44 | 6.12** | ①-② |
| | 자신의 자발적 동기 | 197 | 3.54 | 0.46 | | |
| | 취업의 용이성 | 89 | 3.41 | 0.40 | | |
| | 전 체 | 400 | 3.46 | 0.45 | | |

**p<.01

4.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정체감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정체감은 전체 평균이 3.46으로 간호대학생들의 자아정체감은 보통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5>.

학년별로는 1, 3학년 학생이 2학년 학생보다 자아정체감이 높았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거주형태별로는 하숙 및 기숙사에 거주하는 학생이 다른 학생보다 자아정체감이 높았으나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부모유무별로는 결손가정 학생이 양친이 있는 학생보다 자아정체감이 높았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출생순위별로는 둘째와 셋째 이상인 학생이 자아정체감이 가장 높았고, 외동인 학생이 첫째인 학생보다 자아정체감이 낮았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간호과 선택동기별로는 자신의 자발적 동기에 의해 간호과를 선택한 학생이 자아정체감이 가장 높았고, 취업의 용이성, 부모님의 권유에 의한 순으로 자아정체감이 낮았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

한 차이를 보였다(F=6.12, p<.01). 또한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부모님의 권유에 의해 간호과를 선택한 학생과 자신의 자발적 동기에 의해 간호과를 선택한 학생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상과 같이 간호대학생들은 자아정체감이 비교적 높았으며, 자신의 자발적 동기에 의해 간호학과를 선택한 학생이 다른 학생보다 자아정체감이 높았다

5.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적응 정도

(1) 가정생활 적응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가정생활 적응 정도는 다음과 같다<표 6>. 학년별로는 1, 3학년 학생이 2학년 학생보다 가정생활적응이 높았으나 학년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거주형태별로는 하숙 및 기숙사에 거주하는 학생이 다른 학생보다 가정생활적응이 높았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가정형태별로는 결손가정 학생이 정상가정 학생보다

<표 6>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가정생활적응

| | 구 분 | N | Mean | SD | t(F) |
|--------------|------------|-----|------|------|-------|
| 학 년 | 1학년 | 159 | 3.14 | 0.33 | 2.74 |
| | 2학년 | 100 | 3.05 | 0.37 | |
| | 3학년 | 141 | 3.14 | 0.29 | |
| 거주형태 | 부모와 동거 | 199 | 3.10 | 0.33 | 1.72 |
| | 하숙 및 기숙사 | 99 | 3.17 | 0.32 | |
| | 자취 | 102 | 3.08 | 0.34 | |
| 가정형태 | 정상가정 | 356 | 3.11 | 0.33 | -0.65 |
| | 결손가정 | 44 | 3.14 | 0.36 | |
| 출생순위 | 외동 | 27 | 3.10 | 0.29 | 0.27 |
| | 첫째 | 173 | 3.10 | 0.35 | |
| | 둘째 | 115 | 3.11 | 0.31 | |
| | 셋째 이상 | 85 | 3.14 | 0.34 | |
| 간호학과 선택동기 | 부모님 권유 | 114 | 3.11 | 0.35 | 0.02 |
| | 자신의 자발적 동기 | 197 | 3.11 | 0.32 | |
| | 취업의 용이성 | 89 | 3.12 | 0.32 | |
| | 전 체 | 400 | 3.11 | 0.33 | |

p<.05

가정생활적응이 높았으나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출생순위별로는 셋째 이상인 학생이 다른 학생보다 가정생활적응이 높았으나 출생순위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간호학과 선택동기별로는 별다른 차이 없이 가정생활적응은 그다지 높지 않았다.

이상과 같이 간호대학생들은 가정생활적응이 그다지 높지 않았으며, 학년과 거주형태, 가정형태, 출생순위, 그리고 간호학과 선택동기별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2) 학교생활 적응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교생활 적응 정도는 다음과 같다<표 7>. 학년별로는 1, 3학년 학생이 2학년 학생보다 학교생활 적응이 높았으나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거주형태별로는 하숙 및 기숙사에 거주하는 학생이 부모와 동거하거나 학생보다 학교생활 적응이 높았으며, 거주형태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4.01, p<.05). 가정형태별로는 결손가정 학생이 양친이 있는 학생보다 학교생활적응이 높았으나 가정형태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출생순위별로는 첫째인 학생이 다른 학생보다 학교생활적응이 높았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간호학과 선택동기별로는 자신의 자발적 동기에 의해 간호학과를 선택한 학생이 학교생활 적응이 가장 높았고, 취업의 용이성으로 인해 선택한 학생이 부모님의 권유에 의해 선택한 학생보다 학교생활 적응이 낮았으며, 간호학과 선택동기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4.88, p<.01).

이상과 같이 간호대학생들은 학교생활 적응은 보통보다 높지 않았으며, 하숙 및 기숙사에 거주하는 학생과 자신의 자발적 동기에 의해 간호학과를 선택한 학생이 다른 학생보다 학교생활적응이 높았다.

6. 자아정체감과 적응의 상관관계

간호대학생들의 자아정체감과 적응의 관계에 대해 살펴본 결과 자아정체감과 적응은 통계적으로 약한 상관관계를 보였

<표 7>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교생활적응

| | 구 분 | N | Mean | SD | t(F) | Scheffé |
|--------------|------------|-----|------|------|--------|---------|
| 학 년 | 1학년 | 159 | 2.91 | 0.45 | 1.11 | - |
| | 2학년 | 100 | 2.84 | 0.39 | | |
| | 3학년 | 141 | 2.92 | 0.36 | | |
| 거주형태 | 부모와 동거 | 199 | 2.86 | 0.39 | 4.01* | ①-② |
| | 하숙 및 기숙사 | 99 | 2.99 | 0.43 | | |
| | 자취 | 102 | 2.87 | 0.40 | | |
| 가정형태 | 정상가정 | 356 | 2.89 | 0.41 | -0.20 | - |
| | 결손가정 | 44 | 2.91 | 0.40 | | |
| 출생순위 | 외동 | 27 | 2.87 | 0.53 | 0.17 | - |
| | 첫째 | 173 | 2.91 | 0.38 | | |
| | 둘째 | 115 | 2.88 | 0.44 | | |
| | 셋째 이상 | 85 | 2.89 | 0.37 | | |
| 간호학과 선택동기 | 부모님 권유 | 114 | 2.86 | 0.40 | 4.88** | ①-② |
| | 자신의 자발적 동기 | 197 | 2.96 | 0.42 | | |
| | 취업의 용이성 | 89 | 2.81 | 0.36 | | |
| 전 체 | | 400 | 2.89 | 0.41 | | |

*p<.05, **p<.01

<표 8> 대상자의 자아정체감과 적응 정도와의 상관관계

| | 적 응 | |
|-------|-------------------|-------------------|
| | 가정생활적응 | 학교생활적응 |
| 자아정체감 | 0.312* (0.000) | 0.556* (0.000) |

*p<.05

으며<표 8>, 자아정체감이 높을수록 가정생활 적응과 학교생활 적응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V. 논 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들의 자아정체감과 적응 정도를 알아 보고 자아정체감과 적응정도와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간호대학생들의 자아정체감 형성 및 적응력 향상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간호대학생의 자아정체감 정도는 평균 3.46점으로 보통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자아정체감 중 미래확신성이 가장 높았으며, 주도성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자신의 미래에 대한 확신을 높게 갖을수록 이미 자신이 어떤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해 확고하고 일관된 결정을 갖고 있음을 나타내며 자아정체감이 높을수록 자기신뢰를 가지고 장래 직업에 대한 계획적인 선택을 하고 이를 위한 탐색이나 활동에 참여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므로(김희진, 2001) 이러한 결과는 간호과의 특성상 타 학과에 비하여 졸업 후 진로가 '간호사'라는 직

업적 확실성이 작용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주도성이 낮은 것은 학생들이 임상실습을 통하여 간호사의 역할 중 자율성이 부족함을 경험하게 되고 이러한 경험이 연구에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학생들의 자율성을 신장시키고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자아정체감에 대한 선행 연구는 중·고등학생과 일반 대학생을 대상으로 자아정체감과 자아정체감 형성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관계를 다루거나(이차선, 1999; 정중권, 1999; 배제현, 1994) 자아정체감 지위와 지위의 배경적 요인들을 밝혀 정체감 지위의 분류기준인 위기의 구조를 밝히려는 연구(소영원, 1998; 손해곤, 1993), 집단상담을 하기 위해 극소수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김지현, 2000)들이 대부분이고 학과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거의 없었기 때문에 타 전공 학생들과 자아정체감 수준을 비교하기는 어려웠다.

간호대학생의 가정생활 적응 정도는 평균 3.53으로 보통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학교생활적응 정도는 2.89로 보통 정도의 수준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들이 고등학교 시절에 비해 변화가 많고, 입학 당시 간호학에 대한 학문의 특수성과 학생의 흥미 및 적성이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이로 인해 학업성적이 부진하거나 수업도중 탈락하고 전과나 전학을 희망하는 부적응 학생들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학교생활 적응에는 교수와 학생간의 관계, 교수관계, 학업성취도, 학교의 지적 풍토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박은아, 1993). 대학생의 학교적응에 관한 사회심리적 접근 연구(정현옥, 1996)에서 학교적응을 저해하는 전형적인 유형의 어려움은 학습기술의 결여, 역할 구속, 비우호적 학교분위기 등으로 밝혀졌고, 자기존중과 자기확신, 완성력 등과 관련된 자아관이며, 심리적 요소와 사회적 지지와 같은 사회적 요소가 학교 적응의 제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정규석(2004)은 사회적 관계요인이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서 부모, 친구, 교사와의 관계가 좋을수록 청소년의 학교적응도가 높아지고 이 중 가장 영향력 있는 변인은 교사관계 변인임을 밝혔다. 또한, 대학신입생의 스트레스와 학교적응에 관한 연구(김성경, 2003)에서는 학습 스트레스, 진로 및 취업스트레스, 대인관계스트레스 등이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며 학생들의 스트레스 수준이 높더라도 교수의 지지가 높으면 학교적응 수준이 높아지는 것을 밝혀냈다. 따라서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도교수 제도를 활성화하여 학생과 교수의 유대관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적응에 대한 선행 연구 중 다른 변수와 관계를 중심으로 연구(정중권, 1999; 강혜원, 1999; 박준수, 1988),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승룡, 1994; 현희순, 1999; 최창호, 1999; 구자은, 2001;)들이 대부분이어서 다른 전공학생들과 적응수준을 비교하기는 어려웠다.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정체감은 전체 평균이 3.46으로 간호대학생들의 자아정체감은 보통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생 시기에 정체감이 가장 많이 발달한다는 연구(김형태, 1989; Wagner, 1987; Waterman, 1985; 서봉연, 1975)를 뒷받침해 주었다

학년별로 자아정체감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는데 이는 소영원(1997)의 연구와 일치하였으며, 부모유무별로는 결혼가정 학생이 양친이 있는 정상가정 학생보다 자아정체감이 높았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이는 부모가 없는 학생이 부모가 있는 학생보다 가치와 직업 두 영역에서 더 높은 지위수준에 있었고 그 외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는 박아청(1984)의 연구와 차이가 있었다.

출생순위별로는 둘째와 셋째 이상인 학생이 자아정체감이 가장 높았고, 외동인 학생이 첫째인 학생보다 자아정체감이 낮았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출생순위에 의한 정체감 지위 수준의 연구(박아청, 1984)결과, 가치영역에서는 맏이가 막내 또는 기타 보다 높은 성취지위에 머물고, 직업영역에서는 막내가 대체로 높은 지위를 보였다.

간호와 선택동기별로는 자신의 자발적 동기에 의해 간호과를 선택한 학생이 부모님의 권유에 의해 간호과를 선택한 학생보다 자아정체감이 유의하게 높았다. 이는 배제현(1982)의 연구에서 입학동기가 주체적일수록 자아정체감 형성에서 성취지위가 높게 나타나고, 비주체적일수록 유예 지위가 높게 나타났다는 결과와 일치하며, 자아정체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는 여섯 개 변인, 즉 학교수준, 생활변동, 장래전망, 동일시 대상, 현재-장래 일관성 및 과거-현재 일관성과 자아정체감을 비교 연구한 결과 학교수준, 장래희망, 현재-장래 또 과거-현재의 일관성 변인은 높은 상관성이 있다는 결과(서봉연, 1975)와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가정생활 적응 정도는 학년, 거주형태, 부모유무, 출생순위, 간호과 선택동기별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학교생활 적응 정도 1, 3학년 학생이 2학년 학생보다 학교생활 적응이 높았으나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이러한 결과는 학년별로 대학생 생활 적응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는 김은영(1993), 소영원(1997) 등의 연구와 일치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교생활 적응정도는 학년, 부모유무, 출생순위별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거주형태와 간호과 선택동기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거주형태로 하숙 및 기숙사에 거주하는 학생이 다른 학생보다 학교생활 적응이 유의하게 높은 결과는 대부분의 간호대학생들은 그들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부모나 지도교수 보다는 친구나 선배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기 때문에(권수자, 1989) 가정에서 다니는 학생들보다는 학교주변에서 하숙하거나 기숙사에 있는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교우와 선후배간 상호작용하는 기회가 많아 대학생활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여겨진다.

간호과 선택동기로 자신의 자발적 동기에 의해 간호과를 선택한 학생이 취업의 용이성으로 간호과를 선택한 학생보다 학교생활 적응이 가장 높은 결과는 자기 자신의 선택의지와 적성에 맞아 간호학을 선택한 경우 간호교육과정 중에 잘 적응할 수 있을 것이라는 권수자(1989)의 견해와 일치하였다.

간호대학생들의 자아정체감과 적응과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이 결과는 학교생활의 적응 여하가 청년기의 자아정체감 형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김형태, 1989) 자아정체감의 수준이 높은 자가 적응이 잘 된다는 연구결과(정인숙, 1979; 이승룡, 1993; 김봉소, 1979; 박준수, 1987)와 일치하였다. 또한 자아정체감과 학업과의 관련을 연구한 결과(김형태, 1989; 박준수, 1987; 배재현, 1993)대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은 자아정체감의 형성에 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결과와도 일치하였다.

가정생활 적응이 자아정체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청소년후기에 형성되는 자아정체감이 가정생활 적응에 깊은 영향을 받고 있다는 선행연구들(박아청, 1999; 정종권, 1998; Anderson&Fleming, 1986; Baik, 1997; Shulkin, 1990)을 지지하였다.

위의 결과로 간호대학생의 자아정체감과 가정생활 적응은 보통보다 높았으나 학교생활 적응은 보통보다 낮고 자아정체감과 적응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적응력은 자아정체감 형성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므로(박아청, 2001; 정종권, 1998) 다른 전공학생에 비하여 실습을 포함한 학교생활의 비중이 큰 간호대학생의 학교생활 적응력을 향상시킴으로써 건전한 자아정체감을 확립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도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VI.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자아정체감과 적응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충청남도 소재 H대학과 S대학에 재학중인 간호대학생 40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도구는 박아청(2003)의 한국형 자아정체감 검사와 정종권(1998)이 개발한 가정생활적응도 검사와, 학교생활적응도 검사를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pc+ Package에 의해 통계처리 하였으며 빈도와 백분율, t-test,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 1) 간호대학생들의 자아정체감 정도는 평균 최고 5점에 대해 3.46점으로 보통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 2) 간호대학생의 가정생활적응 정도는 평균 최고 5점에 대해 3.53으로 보통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 3) 간호대학생의 학교생활 적응 정도는 평균 최고 5점에 대해 2.89로 보통 수준이었다.
- 4)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정체감은 학년, 거주형태, 부모유무, 출생순위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간호과 선택동기 중 자신의 자발적 동기에 의해 간호과를 선택한 학생의 자아정체감이 가장 높았다.
- 5)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교생활 적응 정도는 거주형태, 간호과 선택동기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 하숙 및 기숙사에 거주하는 학생($F=4.01, p<.05$)과 자신의 자발적 동기에 의해 간호학과를 선택한 학생이 다른 학생보다 학교생활적응이 높게 나타났다($F=4.88, p<.01$).
- 6) 간호대학생들의 자아정체감과 적응과의 관계는 자아정체감이 높을수록 가정생활적응과 학교생활적응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간호대학생의 자아정체감과 가정생활 적응 정도는 보통보다 높은 수준이었으나 학교생활과 적응은 보통 정도로 나타났으며, 자아정체감과 적응은 약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간호교육 현장에서 간호교육자들은 학생들의 자아정체감 형성과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지도전략과 방안을 마련하여 학생지도를 할 필요가 있으며, 이 시기에 올바른 직업관과 전문직관을 확립하여 준비된 간호사를 배

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제언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 1) 간호대학생의 자아정체성 수준과 및 자아정체감 형성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제 특성을 세분화하여 연구할 것을 제언한다.
- 2) 간호대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과 관련된 주요 변인을 보다 심층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설문지 뿐 아니라 면접, 관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할 것을 제언한다.
- 3) 간호대학생의 자아정체감과 더불어 전문직 정체감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 고성희, 김기미(1994). 간호학생의 첫 임상실습 경험에 대한 연구. *대한간호*, 33(2), 59-71.
- 권수자(1989). 일부 간호학생의 전공 선택동기 및 제 특성에 관한 조사. *서라벌 논문집*, 4, 453-469.
- 권윤희, 김정남(2002). MBTI를 활용한 성장프로그램이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 및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지역사회간호학회지*, 13(2), 216-229.
- 김성경(2003). 대학신입생의 스트레스와 학교적응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 연구*, 10(2), 215-237
- 김영복(1983). 청년기 자아정체성과 사회선호성과의 관계.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선(1986). 자아정체성과 동조성의 발달 및 성차와 그 상관관계.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옥철(1990). 초등교원의 자아정체감 발달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은영(1993). 대학생의 심리적 독립과 사회적 적응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지현(2000). 자기성장프로그램이 대학생의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한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형태(1989).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의 발달과 측정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희진(2001). 대학생의 자아정체감이 진로태도성숙과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평택대학교 사회과학연구*, 5, 369-393.
- 박선기(1977). 자아정체감과 장래전망에 관한 일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아청(1989). 재미한국계 미국인 청소년의 성격과 정체역의 발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8(1), 159-170.
- 박아청(1996). 한국형 자아정체감 검사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5(1), 140-162.
- 박아청(2003). '한국형 자아정체감검사'의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17(3), 373-392.
- 박은아(1993). 가족구조, 학교생활 및 가정생활 적응에 따른 여고생의 자아정체감.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준수(1987). 자아정체감과 적응력 및 자아실현성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배정미(2000). 간호대학생의 정신간호실습스트레스와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에 관한 연구. *정신간호학회지*, 8(2), 411-423.
- 배재현(1993). 청소년기의 분리-개체화와 자아정체감, 학교 및 가정생활에 대한 적응간의 관계. 계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배행자(2001). RET집단훈련이 간호학생의 인생태도에 미치는 효과. *정신간호학회지*, 10(3), 391-405.
- 백영애(2003). 전문대학생의 자아정체감 형성요인에 관한 연구. 광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봉연(1975). 자아정체감 형성에 관한 일 연구.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서수정(1992). 성역할 정체감 유형과 심리적 적응과의 관계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소영원(1997). 대학생의 자아정체감 수준과 적응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상규(1989). 중·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자아정체감 형성 수준과의 관계. 공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봉숙(1984). 청소년의 자아정체감과 적응력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승룡(1992). 청년기 자아정체감과 적응력에 관한 연구. 전주우석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차선(1998).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형성 변인 분석. 고려대학교 대학원박사학위논문.
- 이형득(1983). 집단상담의 실제(3판).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 이혜경(2000). 심상치료가 간호학생의 자아실현, 우울, 자존감에 미치는 효과. *정신간호학회지*, 9(1), 20-34.

- 전광주(1987). 자기일관성과 생활변동이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규석 (2004). 사회적 관계요인이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학*, 56(1), 235-252.
- 정종권(1998). 청소년후기의 가정과 학교생활적응이 개체화와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계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현옥(1996). 대학생의 학교적응에 관한 연구(사회심리적 접근). *전북행정정보*, 10(1), 97-119.
- 조성덕(1987). 자아정체감 성장프로그램의 효과.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탁은아(1996). 대학생의 자아정체감 수준과 대인간 문제해결력 간의 관계. 세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미선(1987). 한국대학생의 심리적 독립과 적응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Abraham, K. G.(1983). The relation between identity status and locus of control among high school students.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3, 257-264.
- Aderson, S. A., Fleming, W. M.(1996). Late adolescent's identity formation: Individuation from the family of origin. *Adolescence*, 21(84), 785-796.
- Baik, J. S.(1997). *Individuation, College adjustment and ego identity: Construction of a measure of individuation and psychometric analysis*.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 Bilsker, D., Schieldel, D., & Marcia, J. E.(1998). Sex difference in identity status. *Sex roles*, 18(3-4), 231-236.
- Bosma, H. A., Gerrits, R. S.(1985). Family functioning and identity status in adolescence.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5(1), 69-80.
- Boulter, L. T.(2002). Self-concept as a predictor of college freshman academic adjustment. *College Student Journal*, 36(2), 234-246.
- Cambell, E., Adams, G. R., & Dobson, W. R. (1984). Family correlates of identity formation in late adolescence: A study of the predictive utility of connectedness and individuality in family relation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3, 509-525.
- Erikson, E. H. (1968). *Identity : Youth and crisis*. New York: Norton.
- Fitch, S., Adams, G.(1983). Ego Identity and intimacy status: Replication and extension. *Developmental Psychology*, 19, 839-845.
- Frucht, S. L.(1989). *Family interaction, ethnic identity, and ego identity: A Study of Mexican-American adolescents*. California School of Professional Psychology.
- Lapsley, D.I. K.(2002). Separation-Individuation, Adult Attachment Style, and College Adjustment.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80(4), 484-492.
- Lawsen, D.(1994). Identifying pretreatment change. *Journal of counseling development*, 72(3), 244-248.
- Moore D., Forster, J. R.(1993). Student assistance program: New approach for reducing adolescence abuse.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71(3), 326-369.
- Rutter, M.(1985). *Studies of psychological risk: The power of longitudinal data*.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hulkin, A. T.(1990). *Separation-individuation and Identity status among late adolescent college students*. University of Minnesota.
- Silver, E. G., Bauman, L J., Goupey, S. M., Doctors, S. R., & Boeck, M. A.(1990). Ego development and chronic illness in adolescen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9(2), 305-310.
- Song, I. S., Hattie, J. A.(1984). Home environment, self-concept and academic achievement: Acausal modeling approach.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76, 1269-1270.
- Turner, W. L.(1990). *Ego-Identity development in black college students: The effects of self-esteem, ethnic identity and family environment*. Virginia Polytechnic Institute and State University.
- Wagner, J. A.(1987). Formal operation and ego identity in adolescence. *Adolescence*, 22, 288-292.
- Waterman, A. S.(1982). Identity development from adolescent to adulthood: An extension of theory and a review of research. *Developmental Psychology*, 18(3), 341-358.
- Watson, M. F., Protinsky, H. O.(1988). Black Adolescent identity development: Effects of perceived family structure. *Family Relations*, 37, 288-292.

-Abstract-

Key words : ego-Identity, adjustment, nursing students

A Study on Ego-Identity and Adjustment in Nursing
Students

Kim, Myeong Hwa · Han, Sung Suk***

Purpose: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go-identity of nursing students and their adjustment to home and university in an effort to identify the correlation of their ego-identity to their adjustability and lay the foundation for providing better personality education to them. **Method:** The subjects in this study were 400 nursing students at H and S universities in south Chungcheong province. The instruments used in this study were Park A-cheong(2003)'s Korean-version Ego-Identity Inventory and Jeong Jong-gweon(1998)'s Home and School Adjustment Inventory. For data analysis, SPSS/PC+ Package was used, and statistical data on frequency and percentage were obtained. Besides, t-test, one-way ANOVA and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were employed. **Result:** The finding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The nursing students investigated got a 3.46 and 3.53 in ego-identity and family life adjustment respectively out of possible five points, which were both above the average. Their score in school adjustment was 2.89, which wasn't high. As for connections between general characteristics and ego-identity, their academic school year, their type of residence, presence or absence of parents and their birth order made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to their ego-identity. But as to motivation of choosing nursing, the students who chose their major at their own option were the best in that regard. Their adjustment to family life made no significant differences, and regarding school adjustment, ego-identity was better among those who lived in a lodging house or dormitory($F=4.01, p<.05$) and who chose their major at their own option($F=4.88, p<.01$). In addition,

those with better ego-identity were better adjusted to home and school. **Conclusion:** As the above-mentioned findings suggested that nursing educators should teach students by mapping out specific plans to enhance the ego-identity of students and facilitate their school adjustment, and full-fledged nurses should be produced by teaching students to build the right work ethics and become qualified as a professional.

*Lecturer, Department of Nursing, Hyejeon College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Catholic University

Corresponding Author